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충청교회 사물음시경 장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4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이태복

하나님께만 영광! (9월 5일, 교회설립기념주일)

제5차 성찬식- 주일1~5부 예배 시에

가족연합예배- 주일 2·3부 예배 시에

교회설립기념찬양예배- 찬양예배 시에

교회설립기념주일 - 다음 주일(9월 5일)은 교회설립기념주일이다.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b)라는 신앙 고백 위에 터를 세우고 처음에는 미미하게 출발했던 우리 교회를 주께서 크신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불려주시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다. 도도하게 흐르는 배교와 세속화의 거친 물결 속에서도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십자가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b). 그러므로 이런 주간 동안은 교회와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헤아려보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에 모이자,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제5차 성찬식 - 다음 주일은 제5차 성찬식이 거행되는 주일이기도 하다. 주일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주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몸을 찢어주시고 보혈을 흘려 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의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다. 특별히 교회설립주일에 거행되는 이번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마음에 새겨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도 또는 한 교회로 설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을 우리 마음에 분명히 하면서 성찬식에 나아가도록 하자.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가족연합예배 -

특별히 주일 2·3부 예배는 가족연합예배로 드리게 된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는 자체 예배로 드리지만, 유년부 이상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주일2부, 3부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특별히 교회설립기념주일에 가족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알려주고

중요한 곳이며 그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셨는지 설명해 주고, 자녀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그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지 점검해주며, 온 가족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도록 준비시켜 주어야 한다. 이런 준비와 기도를 통해서 온 가족과 온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확인하는 연합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교회설립기념찬양예배 - 특별히 다음주일 찬양예배는 교회설립기념찬양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어떤 찬양대가 온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와는 위대하다" 외 다섯 곡의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 있는데, 모두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는 동시에 그 날이 이르기까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위하여 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출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

달고 오묘한 그 말씀 (5-7월 금요집회메시지 요약) - 천국 복음

제2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제2장. 장래에 임할 천국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제4장. 천국의 비밀

제5장. 천국의 생명

제4장 천국의 비밀

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마침내 새로운 계시로 하나님의 구국의 사역이 성취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도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다(마 4:11). 구약에서는 계시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진리를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밀은 무엇인가?

구약의 시대에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의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였다(단 2:44, 45).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 그 날,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우실 영광스런 그 날을 기대하고 있었다.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마 3:11). 이 때문에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자들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마 11:3)하며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해롯 왕 안타파스는 여전히 갈릴리에서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 정권은 날로 변창하고 있었으며 우상 숭배와 다신론과 음란으로 가득 찬 로마는 아직도 쇠망시로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두 단계를 거쳐서 역사한다. 먼저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된 주신 외적인 변화, 정치적 변화로 역사하겠지만, 그 전에 영적인 상태와 인간의 삶 속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역사한다. 이처럼 하

나님 나라는 '지금' 조용하게 임한다. 그것은 인간의 규례를 무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이 세상에 주지 않아버리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지만 군중들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는 방식으로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과 죄의 사슬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서 오는 그 축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세상에 임하였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하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권유하고 계실 뿐 강권적으로 역사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안 받고는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그 나라에 부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비유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준다. 즉, 능력과 권능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으로 이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것이다.

추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씨처럼 사람들 가운데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마 13:31, 32. 한 중의 누룩같이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오시었다(마 13:33). 마치 땅에 뿌려진 작은 씨처럼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 살기로 인하여 시들고 죽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가운데 거룩한 생명을 베푼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통치를 받는 축복의 비밀도 알려준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조용히 역사하지만, 그 때에는 모든 죄와 악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시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마 13:38, 39, 49).

(6월 25일, 7월 2일자 메시지 요약)

SELF-EXAMINATION

*"But a man must examine himself, and in so doing he is t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1 Corinthians 11:28)*

Today's Bible verse really urges you to observe yourself, not someone else, before joining the Lord's Table. No one can make you look carefully at yourself; it is something you do willingly. With the beautiful blessing of the grace of God before your hands, it is your responsibility when accepting His invitation to come holy. Today is our church's anniversary. We have the privilege of sitting together, and celebrating as a great family the Lord's Supper. I am not here to force, but to remind you about what you should look at when you examine yourself in preparation for eating this holy meal.

During your self-examination, you should look at the kind of company you keep. Psalm 1:1 says, "How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stand in the path of sinners, nor sit in the seat of scoffers!" What sort of contacts do you maintain? Proverbs 13:20 asserts, "He who walks with wise men will be wise, but the companion of fools will suffer harm." What type of people do you choose to have close to you? Amos 3:3 asks, "Do two men walk together unless they have made an appointment?" God's children center their friendships on other believers. The Bible clearly states, "Do not be bound together with unbelievers; for what partnership have righteousness and lawlessness, or what fellowship has light with darkness...or what has a believer in common with an unbeliever?" (2 Cor. 6:14&15). Take a few moments to consider who you are and who your friends are.

During your self-examination, you should look at your daily practices. 1 John 2:15-16 emphasizes, "Do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What kind of habits do you have? 2 Corinthians 5:17 tells us,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Are your ways of life godly or worldly?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wealth" (Mt. 6:24). Is seeking earthly treasure part of your routine?

During your self-examination, you should look at your thoughts. Psalm 10:4 says, "The wicked, in the haughtiness of his countenance, does not seek Him. All his thoughts are, 'There is no God.'" Do you think God is real and here now? The Bible instructs us,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 (Lk. 10:27). Do you think like this, or are your self and family more important? I wonder how many people realize that the inner thoughts of their heart come out their mouth, "For the mouth speaks out of that which fills the heart" (Mt. 12:34). Do you know that your thoughts are infinitely inferior to God's,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Is. 55:8). Nonetheless, the Bible challenges you to "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not on the things that are on earth" (Col. 3:2). Do you know why? "For the mind set on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set on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Rom. 8:6). Do you agree? The third time that the resurrected Jesus asked Simon Peter if he loved Him, he said,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Jn. 21:17). Do you love Jesus? I want you to carefully examine your thoughts about Him, "He who loves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he who loves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Mt. 10:37).

During your self-examination, you should examine your motives. 1 Corinthians 10:31 says, "Whether, then,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Is this your purpose in life? The Bible commands us,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hrough Him to God the Father" (Col. 3:17). Do you do that? Please remember that you belong to Christ, not yourself. He invites you to His Table to receive wonderful blessings, but before you sit down to take what He offers you need to make sure you understand the reason why your there. We actually have eternity in which to celebrate our victory, but we only have a short time before the sun sets in which to win that victory. Please do not waste your living time. Examine your motives. It is so dangerous not to.

It is my prayer that everyone here on this special celebration Sunday receives victory because he or she has taken the time for self-examination, and that we all enjoy the upcoming eternal celebration. Please do not forget that Jesus did everything for us. Truly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listen to Jesus, follow Him with all your faith. God bless you. Let us now join the Lord's Table.

If and take my cross as you asked, and only follow You by faith. Amen." 

다음주일 설교

자기 점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고전 11:28)



김성관 목사

오늘 본문 말씀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피보십시오. 이 일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총회교회 설람기념주일입니다. 뜻 깊은 이 날에 우리는 한 가족처럼 한 자리에 앉아 주의 만찬을 나누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있는 저는 여러분께 어떤 것을 억지로 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살핀다고 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들을 살피보라

자기를 살핀다고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들을 살피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계신지요? 잠언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시는지요? 야고보 3장 3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로 다른 신자들과 친하게 지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땅을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고후 6:14,15).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피보라

자기 자신을 살핀다고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피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은 강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여러분께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혹시 이 세상 재물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을 살피보라

자기를 살핀다고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살피야 합니다. 시편 10편 4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참으로 살아계시며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눅 10:27).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표현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늘 궁금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마 12:34b).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훨씬 못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사 5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골 3:2).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6).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요 21:17b).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나 여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마 10:37).

마음속 동기들을 살피보라

자기를 살핀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 속의 동기들을 살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 3:17).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께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자신의 성찬식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궤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다. 그러니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동기를 살피보십시오. 마음 속의 동기를 살피보지 않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요!

교회설립을 기념하는 이 날, 저는 주일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시간을 내어 자기 자신을 살피으로써 승리를 얻고, 다가오는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며 모든 믿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자, 이제 주의 만찬을 시작하십시오. ㄹ

목사칼럼

복음의 길을 걸읍시다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롬 1:17)

많은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경을 배우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그것을 다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방법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흔히 찾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제로 집필된 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책들과 현상들을 보면서 이처럼 방법론을 추구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놓고 본다면 그러한 것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 최성의 창작물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앙의 어떤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자기 경험’에서 나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특별하게 성숙되게 한다든지 혹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험이 다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최성을 낳아내어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부흥 비결, 신앙 성숙의 방법, 기도를 잘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 등 방법론을 추구한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로부터 받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라면 오직 선물을 주신 분을 향해서만 관심을 가져야지 어떠한 특정한 방법에 몰두하면 위험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성숙을 이뤄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 11:36)라는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계 1:8) 혹은 “처음이고 나중이라”(계 21:6)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의 종결을 이루신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유지시키시며, 믿음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분이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어떠한 경험이나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주입받거나 빌려와서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서 그 능력을 끌어오려고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경험과 방법을 스스로 포기해야 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땅에서는 죽어도 좋다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의 소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지 땅에서 소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경험에 기초한 방법을 앞세워 십자가를 모독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성도는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무슨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주여 나를 말씀으로 깨우치소서!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양재욱(목사, 종동3부 지도)

권사칼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순자(권사서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제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꼼꼼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에게서는 무슨 달란트를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오래 하고 기도를 해봐도 속 시원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달란트가 특별하게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85장 찬송이 제 마음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비움 태여나 얼마나 좋으랴 /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세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달란트는 없어도, 예수님이 저의 기쁨과 참 소망이며 보배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나는 얼마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가? 이렇게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제 자신의 것을 더 열심히 구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옛 사람들을 죽이고 날마다 복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의 심령을 비추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악화만 가고 복음은 갈수록 흐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쉽게 강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진리이지요. 지난 5월부터 금요일 때마다 선포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히 갖게 되었고, 그 동안 망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의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친히 비움 날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 그 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권사회 일원으로 여러 해 섬기다보니 각 지교회 권사님들의 애로와 기쁨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었고, 우리 권사님들의 성품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과 모양이 각각 다르듯이 권사님들의 성품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서는 마음과 뜻이 오직 하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라는 말씀대로 모두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봉사와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헌신하시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힘을 다해 복음의 길로 달려가려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b). 아멘!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귀한 구원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지만 처음에 저는 단기간에 임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들보다 시간을 알차게 사할지 못해서 켄 뒤 지쳐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과 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근원이 충족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선교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시며, 나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길 소망했습니다.

저희가 간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타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저희를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 또한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히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십시오! 다행히 물매들을 들고 풀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던 담대함을 허락하십시오!' 주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비로소 저희들은 우연히 스치 지나가게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 중에 만난 사람 중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날도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조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대학생 2명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에게 "너는 어떻게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 생가짐을 느끼고 담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금단한 짐을 풀이오라고 저는 부족한 영어실력이지만 그들에게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의 이해할 주소를 나누고 앞으로도 친구로 지낼길 기원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인 저를 사용하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전할 수 있게 사하셨으니 말입니다."

주님이 저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주님을 드러낼 만큼 경건하고 깨끗한가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의 삶이 깨끗함을 입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백상진(대학부)

한없는 눈물

문화와 풍습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설레임, 그리고 열정이 마음 가득한 채 선교지에 도착했다. 언어가 달라서 두려움이 앞섰지만 하나님께 함께 할 것을 믿고, 첫 사역지에 도착했다.

하루 동안 곳곳을 다니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니 많은 사람이 잘 받아들이며 기뻐했다. 사역을 마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그 나라에서도 비리진 땅이라고 하는데 다른 도시와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거지들이 모여 사는 소인국 같았다. 그들은 매우 오지라서 그곳까지 가서 전하는 이들이 없었던 지라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말한 하영도 한없이 울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였다. 다시 사역지를 옮겼다. 한참을 전도하는데 한 40대 중반 정도모이는 남자가 손짓을 하면서 따라 오라고 했다. 이 심판 정도 따라갔더니 신전을 자리고 불공을 드리는 절로 들어가 자기 믿는 신을 소개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니 그가 갑자기 울면서 영접하고 믿기로 굳게 약속하는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났다. 이런 사역 속에 느낀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땅임을 일깨워주었다.

물도, 먹지도 않는 곳마다 다르고 다르다고 불쾌해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 땅의 영혼들이 예수님의 보혜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며 매우 흠뻑했고 감사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로 공허히 꼭 차 있음을 보면서 이 땅이 주님이 주신 소망의 땅임을 느꼈다. 이 땅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길 기원한다.

박윤석(집사, 13교구)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8월 16일(월)~8월 25일(수)	9교구 10지역	박문태	8월 17일(월)~8월 24일(월)	1교구 4지역	김신국
8월 16일(월)~8월 26일(목)	9교구 3지역	홍성국	8월 17일(월)~8월 24일(월)	2교구 7지역	김문섭
8월 17일(월)~8월 25일(수)	대학부 40	김영준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

개인적으로 네 번째 가는 선교였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내 마음은 내가 선교에 대한 경험과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교만함으로 꽉 차 있었다. 선교모임에 꼬박 꼬박 참가했지만 몸만 참가할 뿐 마음은 전혀 준비되지 못했고 언어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선교지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 그 무엇보다도 영혼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전혀 준비되지 못하였다.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고 선교를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서의 사역 첫 날에 나의 일을 막으셨으며 나의 교만함을 바로 치셨다. 준비해 간 전도언어로 그들에게 열심히 말하였지만 그들은 못 알아듣겠다는 말만 연발하였다. 나의 입은 닫혔고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만 선교를 하려 했던 것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다음날 그들에게 다가가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제와 달리 그들은 나의 말을 알아듣고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매우 감사했다. 내가 화려한 말과 언어로 그들을 설득하여 예수님을 알게 만들었다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주 기쁘고 감사했다. '예수'라는 단 두 마디만 전해도 그들은 기쁨이 담겨있는 나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셨다. 부족한 우리들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복음을 들은 그들이 그 땅을 주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리라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로 인해 나는 든든하였다. 우리 팀원들의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우리로 하여금 새벽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셨다. 우리는 11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로 하여금 11명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하셨다.

이번 선교를 통해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힘이 되고 사역이 풍성해졌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킬 것을 확신하며 계속 그 땅을 위해 기도해왔다. 마지막으로 나를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이호준(대학부)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이번 선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역 첫째 날 빈민촌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정말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희망 없는 그곳에서 귀한 영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축조전도를 하다가 카드놀이로 하는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의 말을 잘 들었는데 자신들에게 당장 실질적 이득이 되는 말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 카드놀이에 열중하였습니다. 한창 복음을 전하고 있던 저는 좀 당황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뒤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나, 과연 이 복음이 저들에게 들리기는 할까라는 의문으로 머리가 복잡해질만 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놀이에서 손을 떼고 계속 저를 쳐다보는 한 영혼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앗!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계속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박도박 말하였습니다. 복음을 다 들은 그 영혼의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런 맺혀있었습니다. 영접기도까지 순조롭게 마친 그녀의 얼굴은 이전과는 달라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영혼을 사랑하신 것을 그녀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하보다 한 영혼을 구하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선교를 하면 정말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끔 정말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을꺼라는 믿음이 없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당장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린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 언젠가는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의 나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합니다.

김지희(대학부)

●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8월 31일(월)~9월 10일(금)	16교구 4지역	홍원석	9월 1일(수)~9월 10일(금)	1교구 9지역	김용조

영광성경학교를 재지교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종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거듭난 천국일꾼'이었다. 거듭남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있던 나는 이번 성경학교를 계기로 여러 가지를 배웠다. 거듭나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천국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듭난 천국일꾼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가르칠 때와 사도 바울을 깨닫게하실 때 많은 것을 느끼고 은혜를 받았다. 배우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이러한 뜻을 알 수 있어서 기쁘고 즐거웠다.

하지만 나는 성경학교를 가기 전 시험에 들기도 했다. 집과 교회까지 멀어 2번이나 갈아타야 해서 성경학교에 가기 싫었고, 잠자리도 (친구들과 자는 것은 재미있는데) 집이 아니어서 불편한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매년 2번씩 가는 성경학교를 꼭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었다. 친구를 전도 하지 못할 망정 성경학교에 안 가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학교를 가보니 정말 재미있었고, 세주식과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

았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돌아선 예수님께서 낮고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병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을 베풀어, 거듭난 천국일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거듭난 천국일꾼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많이 알아야 하므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을 깨달아 남에게 베풀어야겠다. 아직 '거듭나'는 뜻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설교나, 찬양할 때나 분반공부시간에 친구랑 장난치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성경학교를 가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종실한 주님의 종이 되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랬으면 나는 걸로만 주님을 믿고 속으로는 세상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다. 지금도 주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의 열매를 누구보다도 많이 맺고 싶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싶다.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조하은(소년부)

거듭난 천국일꾼을 소망하며

순종으로 대답하는 천국일꾼

"예들! 이번 수련회 중등부 연합으로 하거든요..."

"설마요, 안 갈래요."

"학원 특강이 있어서 못 가요."

많은 학생들이 수련회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였고 내심 아이들의 이유를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이 바꾸어서 참석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수련회 첫날 아침 불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적은 학생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학생들을 부르셨을 텐데 그 초창에 응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로 수련회에 불참하는 모습이 꼭 잔치의 비유(눅 14장)와 비슷해서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나의 이력을 때 모습도 저였겠지'라고 생각하니 지금의 내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변화될 그들의 모습을 소망하며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거듭난 천국일꾼이 수련회 주제인 만큼 수련회 기간 내내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 계획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거듭난 교사인가를 자문하였습니다. 나의 거듭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것을 깨닫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 구원 사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정말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듭남에 대해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알기를 소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수련회 기간 내내 무성의하게 참여하는 일부 학생들을 보면서 마음이 낙심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귀는 막힌 것 같았고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허공을 떠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국일꾼이란 한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이 마냥 떠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귀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며, 많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두 귀를 모두 여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장단으로 말씀을 듣는 그들이 나중에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모습에 눈이 그려졌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며 한순간에 임하지만 거듭난 천국일꾼은 많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시작입니다. 지금 갖고있는 모습은 나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이들을 향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므로 이 학생들이 반드시 거듭난 천국일꾼이 되리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어렸을 적 모습이 아닌 지금의 내가 된다는 뜻이 지금의 사랑하는 학생들도 거듭난 천국일꾼으로 만들어져 가리라고 확신하며 오늘도 무릎 꿇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신향현(중등3부 교사)

2003년 2학기 저는 처음 중헌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찬양대에서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주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니다. 그 후 2004년에도 장학금을 받았고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장학금으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날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때까 때로 나태하게 그저 날마다 다들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 많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어떤 돈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마음이 저를 제책시키고는 합니다.

천국일꾼 양성의 일환으로 주어지고 있는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니 제가 남겨야 할 달란트도 많아 질 것이라며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남겨야 할 달란트도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까래 많은 달란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든 사용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시든지 생각해보입니다. 받은 달란트만큼 그 달란트를 다시 나누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받고 있지만 내가 받은 달란트도 수입이 생기게 되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써야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에게 큰 비전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부에서는 학교 교사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커서 해야할 일이 저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려 하는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저는 기도하면서 저의 비전을 생각하고 그 비전을 이루려 노력할 뿐입니다. 선생님도 필요로써 이렇게 나를 사용하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주신 달란트만큼 저에게 맡겨지는 주님의 일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더 맡겨질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쁩니다. 저의 또 하나의 목표와 인생에 있어서의 비전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가 사용하려고 하실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끊임없이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 없이 봉사만 하려 든다면 분명 무너질 것입니다. 맡겨지는 일은 커지는 믿음에 자라지 않는다면 분명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러도 멈춰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제게 일을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저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은 더 큰 일을 맡겨 주실 것이고, 주께 저는 '아멘'으로 주님의 사용하신에 순종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상상해보는 것은 참 즐거움 일입니다. 주께의 이룬들이 봉사하시는 모습만 보면 '나는 어른이 되면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을까?'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의 비전이 머속에 그려집니다. 교회와 미래에 이끌어 갈 어린 젊은 일꾼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주시고 저와가 많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해주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와가 올바르게 성장해 천국일꾼들이 되어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슬기(고등부, 장학생)

교회 탐방 32 새가족 양육부

해산하는 수고(갈 4:19)

새가족양육부의 초점은 영연에 맞추어져 있다. 새가족양육부는 영연들이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을 포착하여 그들을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 놓기 위해 힘을 쏟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이야 경우에 따라 타교인이 다이나미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새가족양육부의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새가족양육부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새가족양육부는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여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부서입니다. 또 기혼신자라고 해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자하는 성도들도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영우 장로)

새가족양육부의 운영체제는?

새가족등록실에서 등록을 하면 성인이혼신자와 새가족이라든 대안생과 청년은 1주일의 적응반을 거쳐 교구에 소속되고, 초신자일 경우 양육반 과정에 들어가 6개월의 양육과정을 통해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교육 시간은 새가족부 1부 예배를 마치고, 1부 본예배를 드리고, 다시 2부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권사)

새가족을 섬기는 마음가짐은?

한 영연을 끝까지 책임지자는 각으로 온신의 힘을 다 해서 섬깁니다. 교사로써 작은 예수가 되겠다는 각오로, 8명의 새가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장되는 부서입니다. (고길순 집사)

제가 부족한 것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새 가족들을 보내 주셔서 오이려 배우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신윤경 집사)

새가족 중에서 순순하게 믿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을 보면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게



레 집사)

새가족양육부에서 부탁하는 말씀은?

새신자가 오면 그분을 천국일꾼으로 양육하기 위해 교회 내의 여러 부서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새가족양육부에서 잘 양육받고 수료해서 각 부서에 배치될 때, 각 부서에서 이분들을 모셔 가서 끝까지 잘 양육하여 이 분들이 훌륭한 천국일꾼으로 부리 내리도록 부서간 연계를 통해 잘 섬겨야 합니다. (이보신 집사)

새가족양육부는 교회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오신 분들이 교적반보를 받으려면 꼭 새가족양육부를 거쳐야 합니다. 교회생활을 아다가 교적반보가 없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은숙 권사)

영연을 길이 사랑하는 헌신된 교사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권영우 장로)

한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하고 양육하여 자람시키기 위해서는 무한한 꿈과 눈물이 필요하다. 이것은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육의 생명이든 그라임한든 영연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 만큼의 꿈이 필요할 것일까? 새가족양육부의 구성원들은 기꺼이 이 수고를 감당하고도 모인 사람들이다.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강하기를 바란다.

(윤지/권집사)

상반기 주간성경공부 무기

사 사 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학기에 사사기를 공부할 수 있었다. 종종 설교를 통하여 한 시대의 흐름이 불순종, 심판, 구원, 회개의 단계로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한 머리에 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깨닫으면서 머리를 여러 번 끄덕이게 되었다.

사사기의 주제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이다. 옛날부터 삼손까지 사사들의 영적인 상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적나라하게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길에 달라갔던 우리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의 죄악을 고백할 때마다 나를 용서하시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내 마음은 숙연해진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매 시간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점점해 보고자 말씀하였다. 그 때마다 왜 그렇게 내 마음이 찢어지는지 너무나 의외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안일함에 젖어있지 않았나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삶의 과정이려니 생각했는데 대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값이 희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새벽기도가 시작되었고 화요일마다 기도원 성산에서 부르는 기쁨이 회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표한 사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셨지만 마귀와 대 삼손은 어느 한 가지도 순종치 못하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에 빠뜨렸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정죄도 점점 더 강해진다 것을 깨닫고 새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세밀하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많이 기도하시고 애쓰신 분들을 감사로 표현한다.

박익진(집사, 4교구)

다음 주일 찬송

28장 "아무 흠도 없고"

다음 주일 찬송 "아무 흠도 없고"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있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시되었다. 특별히 1-3절과 4-6절을 중심으로 가사의 내용을 묵상해 보자.

1-3절 : 오직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며 찬송해야 할 것이다.

4-6절 :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지위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주님의 자비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널리 전파하라는 각오와 결심을 세우게 하여 찬양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 예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에서부터 시작된 성산의 의미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산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동안 이 찬송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자.

(찬양원회)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423	신종철	19	고등부	차 회(5)
2424	황기태	15	청년1부	김재명(6)
2425	김영섭	10	청년1	이진규(6)
2426	정기순	2	청년1부	김달수(10)
2427	손윤성	2	고등부	김달수(10)
2428	윤지	2	중등3부	김달수(10)
2429	정희서	8	청년1부	박진영(4)
2430	함다현	6	중등부	박복선(7)
2431	박태훈	7	중등부	박순호(7)
2432	서명준	11	청년2부	김정재(12)
2433	권기범	19	청년2부	박복선(7)
2434	서명하	9	청년1부	이은성(9)
2435	김진숙	9	청년1부	이은성(9)
2436	오 안	17	청년1부	이은성(9)
2437	김연미	17	청년1부	
2438	김연미	6	청년2부	김인관(6)
2439	서두명	6	청년2부	유영재(3)
2440	신정희	1	청년1부	김경애(1)
2441	박경숙	13	청년2부	김경애(1)
2442	김정자	5	청년3부	한수재(6)
2443	변미화	14	청년1부	박진영(4)
2444	유미나	15	외선부	김달수(10)
2445	나리소	16	외선부	임홍숙(16)
2446	가 안	17	외선부	임홍숙(16)
2447	이지원	19	대학부	남주은(16)
2448	신창진	11	청년1부	박진영(4)
2449	최명준	14	청년1부	이은성(9)
2450	신정우	1	청년1부	최미재(7)
2451	이성수	3	청년1부	
2452	오주영	9	청년3부	변찬숙(11)
2453	이창호	10	대학부	강 협(6)
2454	박지민	8	고등부	이성구(9)
2455	신선경	11	청년1부	이성구(9)
2456	장시영	14	대학부	주재성(12)
2457	남 소	16	청년1부	한규태(16)
2458	정정숙	15	청년2부	박복선(7)
2459	김화정	14	청년1부	최복선(7)
2460	조진보	1	외선부	김두수(16)
2461	박복남	15	청년2부	문순화(1)
2462	소하리	19	외선부	
2463	윤희라	19	외선부	골로소(19)
2464	황기우	19	외선부	김영미(19)
2465	조 리	19	외선부	김영미(19)
2466	서민호	15	청년1부	이수영(15)
2467	정영숙	15	청년2부	조성진(19)
2468	간지진	19	외선부	김희철(15)

※ 출생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부에 오시기 바랍니다.※

